

오늘날 한국 가족을 진단한다



李東瑗

한국가족학회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태양이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는 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사랑과 가족이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지난 1월 각계 전문가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을 실으면서 위와 같은 말로 끝맺음을 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몇 세기 전부터 가족학자들 가운데는 가족은 멀지 않아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표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많은 가족학자들은 기존 가족제도의 틀은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의 정서적 충족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가족은 고속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정치, 경제 등의 다른 사회제도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심한 문화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60년대 이래로 가족 구조의 다양화, 결혼 연령의 상승, 혼인을 감소 및 이혼을 증가 등 가족의 격심한 구조

적 변화 과정을 목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은 내적으로도 급격한 질적 변화를 겪어 왔다. 한 가족을 구성하는 남자와 여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각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간에, 세대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가족이 화합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빚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가족은 이혼율의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성 못지 않게 내면적으로 그 질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족이 실상은 속

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가족으로의 전환이 미미하다면 우리의 가족은 그 내적 불안정성이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져서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러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 성원의 마음의 고향이 아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 곳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마음 편히

즐겁게 머무는 곳도 아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살면서도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가 이혼을 심각하게 꿈꾸었다고 답하고 있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핵가족 형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부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자녀 중심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면 우리

가족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몇 년전만 해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혼 후에도 자녀를 서로 데려다 키우려고 부부가 쟁탈전을 벌였었다. 한데 요즘은 서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보육원에는 이혼한 부모들의 자녀가 넘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사회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 현상으로 인해 자연히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구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결혼을 하지

가족의 안정은
곧 사회의 안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족 전체, 즉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가족 정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않은 독신족 또한 당당히 하나의 생활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단독 가구의 수적 증가는 바로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구조적 해체 못지 않게 정서적 해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과거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가족 문화의 창조이다. 이제 가족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보금자리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만들 때처럼 우리는 자기 일생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야만 한다. 개개인은 각자의 인생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적 삶을 선택해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삶의 형태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정책은 새로운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개개인이 가족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만 한다.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의 차원에서 새로이 계획되고 정의되는 새로운 가족상의 정립은 각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과거의 가족과는 달리 가족이

소규모화된 사회에서 노인 부양이나 치매 환자 등을 가족이 담당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이러한 가족의 부담을 가족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 가족의 구조적, 질적인 안정성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데에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만을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여타의 부담과 의무들을 지고 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가족은 소규모화되고,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성격은 약화되었는데, 가족 성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가족의 부담은 내적인 역량을 훨씬 넘어선다고 있다. 이제 가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족이 떠맡고 있는 이러한 여분의 부담들을 기꺼이 떠안아 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안정은 곧 사회의 안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족 전체, 즉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가족 정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가족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틀을 새로이 짤 때만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함께 가는 가족의 밝은 미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